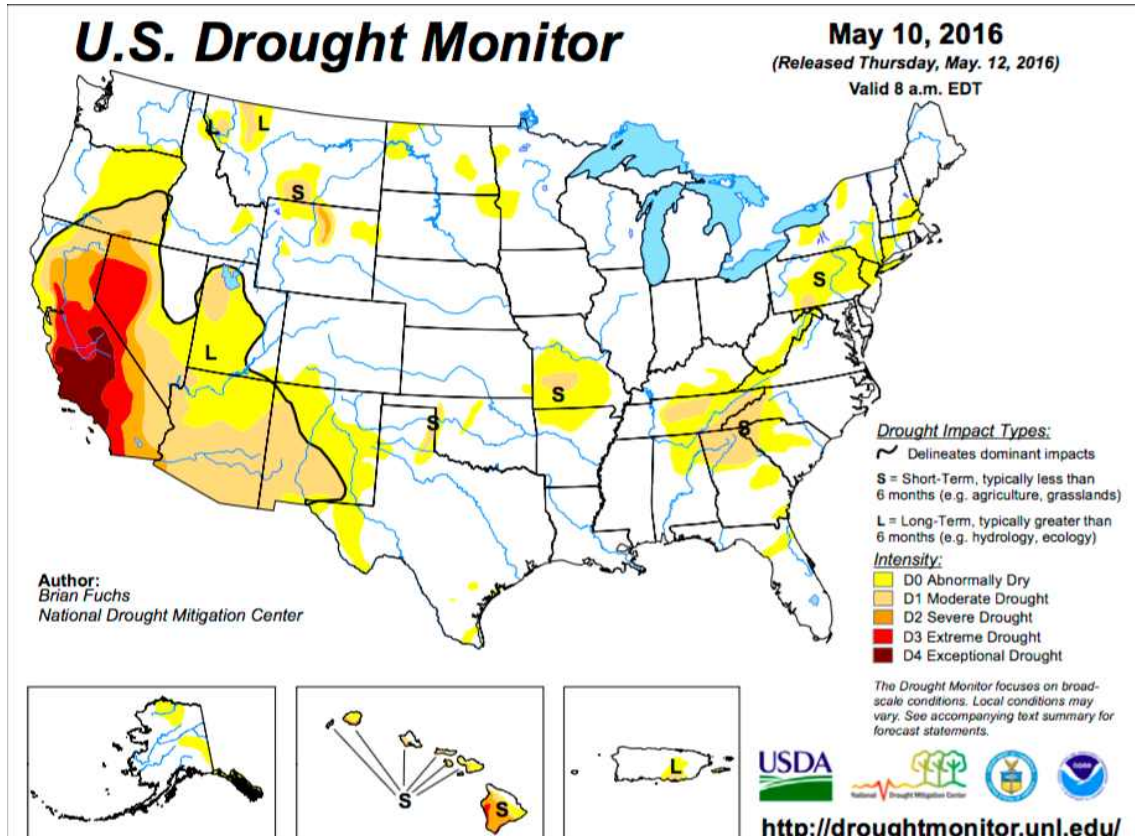


5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20)

□ 미국 기후 현황(5/8~5/14)

중서부 일대는 기상변동으로 농작업이 지연되었다. 남부와 서부의 옥수수 지대 일대에는 2인치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주 후반으로 가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파종 직후 작물들의 생육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대평원 북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은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부와 서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남동부와 태평양 연안 일대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5°F 정도 높았다. 따뜻한 날씨와 더불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평원 일부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면서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작물의 생육 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몬타나주 일대는 눈이 내리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등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다. 북서부 일대는 비가 조금 내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캘리포니아와 로키산맥 남부 일대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북부는 지난 몇 개월과 비교했을 때 저수량이 나아가지는 했지만, 남부와 남서부 일대는 여전히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



## □ 농업 현황 요약(5/9~5/16)

서부와 남부 일대는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고,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와 달리, 대평원 북부 고원지대와 중서부 일부 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았다. 몬태나,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의 일부 지역 및 와이오밍은 지난 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 8°F 이상 높았다. 미 대륙 전반적으로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시시피강 중류 지역과 몬태나, 텍사스 등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미주리 남동부는 지난 한 주간 강수량이 4인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 □ 세계 기후 현황(5/8~5/14)

■ 유럽: 대륙 전반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로 겨울작물의 생육상황은 개선되었지만,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스페인과 프랑스, 발칸반도 일대에는 25~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독일 남부지역과 영국, 폴란드, 발틱 연안 국가들에는 이보다 적은 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중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이번 비로 토양 수분 상황은 매우 좋은 편이지만, 밀과 보리의 경우 성장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 등의 파종작업도 이번 비로 다소 지연되었다. 북부 겨울 작물 재배지역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2~5°C 정도 높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남부지역은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았다.

■ 구소련(서부):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렸고, 북부 일대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러시아 북서부 일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이 덕분에 여름 작물의 파종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남부와 중부 및 러시아 남부 일대는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겨울밀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지만,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 등의 파종 작업은 다소 지연되었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는 비가 내렸다. 북부 평원 지역도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남부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에 내린 비는 토양 수분 상황을 개선시켰다. Heilongjiang 일대의 토양 내 온도는 10°C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이 덕분에 옥수수와 대두의 발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북부 고원의 경우 비가 내리면서 여름작물 파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남부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벼 재배지 일대는 적정 용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과 남한에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북한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업이 재개되었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1~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면화 등의 수확작업과 겨울밀의 파종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이보다 남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와 중부 지역은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농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토양에 충분한 수분공급을 해 주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추가적인 겨울작물 파종작업이 이루어졌다. 서호주의 주요 밀 재배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겨울작물의 추가적인 파종작업도 이루어졌다. 서호주 일대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북부와 중부 일대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물의 생육 상황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다. Buenos Aires 북부와 Chaco 일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La Pampa에서부터 Salta에 이르는 남부와 Formosa동부에서부터 Corriente에 이르는 북부 지역은 1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10°C 중후반까지 올랐다. 남서부의 La Pampa, Buenos Aires 남서부 및 파라과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0°C 중반까지 올랐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21%, 41%이며 이는 2015년 같은 기간의 35%, 72%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Parana 중부와 북부, Mato Grosso 및 인근의 Sao Paulo, Paraguay 등에는 50~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2모작 옥수수의 80%가 5월 2일 개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번 비로 성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Mato Grosso 동부에서부터 Bahia에 이르는 주요 지역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올랐다.